

금요 양성 2024년 10월 4일

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

태양 형제의 노래 The Canticle of the Creatures

오늘, 세라핌적 사부이신 성 프란시스의 축일에, 태양 형제의 노래에 나와 있는 사부님이 직접하신 말들을 살펴본다. 성인의 병고 마지막 시기였던 1225년에, 찬미가의 첫부분에서 성인은 피조물을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 누구보다도 평화를 이루기위해 노력했던 그는 10절과 11절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그 당시 아씨시의 정치와 종교 당국사이의 분란때문이었다. 그 다음으로, 죽음 바로 직전에 육신의 죽음 자매에 대해 하느님을 찬미하는 두 절을 추가하면서 우리의 참회와 회개를 촉구했다.

태양 형제의 노래 The Canticle of the Creatures (번역본 출처: 프란치스칸 원천 1 아씨시 프란치스코와 글라라의 글)

¹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느님,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모든 찬양이 당신 것이옵고 묵시 4:9-11

²홀로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만 이것들이 속함이 마땅하오니,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나이다.

³내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찬미 받으시옵고, 토빗 8:7

그 가운데 각별히 주인이신 해님 형제와 더불어 찬미받으소서.

해님은 낮이옵고, 그로써 당신께서 저희를 비추시나이다.

⁴아름답고 장엄한 광채로 빛나는 해님은,

지극히 높으신 당신의 모습을 지니나이다.

⁵내 주님, 달 자매와 별들을 통하여 찬미받으소서 시편 148:3

당신께서는 빛 맑고 귀하고 어여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셨나이다.

⁶내주님, 바람 형제를 통하여 그리고 공기와 흐린 날씨와 갠 날씨와

모든 날씨를 통하여 찬미받으시옵소서. 다니 3:64-65

저들로써 당신 피조물들을 기르시나이다. 시편 103, 13-14

⁷내 주님, 쓰임새 많고 겸손하고 귀하고 순결한, 시편 148:4-5

물자매를 통하여 찬미받으소서.

⁸내 주님, 불형제를 통하여 찬미받으시옵소서. ^{Dn 3:66}

그로써 당신은 밤을 밝혀주시나이다., ^{시편78:14}

그는 아름답고 쾌활하고 씩씩하고 힘차나이다.

⁹내 주님, 우리 어머니인 땅 자매를 통하여 찬미받으시옵소서. ^{다니3:74}

그는 우리를 기르고 보살피며

울긋불긋 꽃들과 풀들과 온갖 열매를 나누어 주나이다. ^{시편 104:13-14}

¹⁰내 주님, 당신 사랑 까닭에 용서하며, ^{마태 6:12}

병약함과 시련을 견디어 내는 이들을 통하여 찬미받으시옵소서.

¹¹평화안에서 이를 견디는 이들은 복되오니, ^{마태 5:10}

지극히 높으신 이여, 당신께 왕관을 받으리로소이다.

¹²내 주님, 우리 육신의 죽음 자매를 통하여 찬미받으시옵소서.

살아 있는 어느 사람도 이를 벗어날 수 없나이다.

¹³불행하옵니다. 죽을 죄를 짓고 죽는 이들이여!

복되옵니다,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을 실천하며 죽음을 맞이할 이들이여,

두번째 죽음 ^{묵시 2:11 20:6}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리이다.

¹⁴내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들 하여라 ^{다니 3:85}

감사를 드리고 한껏 겸손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라.

https://digitalcollections.franciscantradition.org/document/bx4700-f6f722-1999-d019/the_canticle_of_the_creatures_1225/1225-00-00?searchOption=transcriptions&term=Canticle%20of%20the%20Creatures&searchType=all_words

태양의 노래를 읽은후에, 인용된 성서 구절을 찾아서 - 그 구절들을 읽고 - 프란시스가 성서 구절들에 얼마나 친숙했었는지를 살펴보세요.

+ 당신의 매일 생활에서 성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회칙 4조)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태양의 노래 10절과 11절을 다시 읽으시오.

+ 가족이나, 직장 또는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 어떻게 봉사합니까?

+ 당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어렵습니까?

+ 10절은 완전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나게 합니다. 프란시스는 그 이야기와 이 태양의 노래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12절과 13절은 우리 생의 마지막에 대하여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궁극적인 죽음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생각을 피력해 보시오.

+ 1978년 회칙의 서두, 특히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 관하여”를 다시 한번 읽어 보시오. 참회와 회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10월 3일에 있었던 **프란시스의 전이예식에 대한 짧은 비디오**가 여기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TRzZzORmdg>